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시작

- 해양수도권 조성의 마중물이 될 해양수산부 이전작업 8일부터 시작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2월 8일(월)부터 약 2주간에 걸쳐 부산 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이전을 위한 이사업체는 지난 11월 CJ대한통운으로 선정되고 이사는 5톤트럭 약 249대와 하루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실국별로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세종 청사에서 8일 오후 첫 트럭이 출발하여 9일 오전 부산 청사에 이삿짐을 반입할 예정으로, 10일부터는 해운물류국을 시작으로 부산 청사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개시하고 21일까지 이사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많은 차량과 인력이 투입되는 장거리 이사인 만큼 이전 기간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작업자 안전교육 등 안전 및 보안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운영지원과 부산이전추진기획단	책임자	팀 장	김한울 (044-200-6060)
		담당자	사무관	명수한 (044-200-6061)